

고금(古今)에 중국 창작물 형식을 응용한 한국 창작물 탐구와 새로운 창조성의 발견 - 『전등신화』와 『금오신화』, ‘진정령’과 ‘환혼’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202221698 윤예진

1. 서론
2. 『전등신화(剪燈新話)』와 『금오신화(金鰲新話)』의 비교
3. ‘진정령(陳情令)’과 ‘환혼’의 서사적 비교
4. ‘진정령(陳情令)’과 ‘환혼’의 장르적 비교 - 한국 드라마에 응용된 중국식 고장극(古裝劇) 장르 문법
5. 결론

1. 서론

재러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는 저서 『총, 균, 쇠(Guns, Germs and Steel)』의 한 챕터를 중국 분석에 할애하며 중국이 현재의 중국, 즉 한국, 일본, 베트남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문화권에 큰 영향을 미친 국가가 된 이유를 논했다. 그는 현재까지 동북아시아 문화권에 각인되어 있는 중국 전래 요소 중 특히 한문을 들면서, ‘이처럼 중국 문자가 한국과 일본에서 끈질기게 버틴 것은 거의 10,000년 전 중국에서 시작되었던 동식물의 가축화, 작물화가 20세기에 남겨 놓은 생생한 흔적’이라고 맺었다.¹⁾ 중국 문화가 현재의 한국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 서론을 쓰는 동안에도 열 개 넘는 한문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동북공정과 험한 문제가 불거지며 이러한 역사적 유사성은 거론하기 힘든 주제가 되어 가고 있고, 그 민감성은 미디어 콘텐츠에서 특히 심하다. 그러나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반드시 중국에 귀속되었다거나 중국의 가치관을 답습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본고는 몇백 년간의 시간차를 두고 중국과 한국 양국에서 발견된 유사 형태의 환상 작품, 구체적으로는 소설 두 편과 드라마 두 편을 비교함으로써 서사적 유사성과 장르적 유사성을 읽어내고, 각색에서 발생하는 독창성을 탐구하며, 그를 통해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전등신화(剪燈新話)』와 『금오신화(金鰲新話)』의 비교

『전등신화(剪燈新話)』는 중국 명나라 홍무제 때 구우(瞿佑)가 편집, 집필한 소설집으로 고금의 괴담과 기이한 이야기들을 엮은 전기소설이다. 이는 명대의 유일한 문어체 소설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후 한, 중, 일 3국에서 크게 유행했다.²⁾ 『금오신화(金鰲新話)』는 계유정난 이후 조선 전기에 김시습(金時習)이 집필한 한문 전기소설로, 한국 전기체 소설의 효시이며 이후 창작될 소설들의 기본을 제시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³⁾ 명대에 지어진 『전등신화』가 동아시아 각국에 수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시습이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아 『금오신화』를 썼을 가능성은 학계에서 타당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외에 일본의 『오토기보코(伽婢子)』, 베트남의 『쭈웬 끼 만 록(傳奇漫錄)』 등이 『전등신화』의 영향하에 창작되었으리라고 추측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금오신화』만 살펴보도록 한다.

두 작품 모두 집필 당시에는 상당한 분량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소실되어 일부만 전해지고 있다. 『전등신화』는 부록을 포함하여 5권에 총 편수는 20편이고,⁴⁾ 갑(甲)권만 전해지는 『금오신화』는 5편이 전부이다.⁵⁾ 두 작품은 귀신과 신선, 저승 등 환상적인 소재가 등장한다는 점이 가장 뚜렷한 공통점이다. 두 작품의 공통 테마를 둘로 분류하자면, 귀신과 인간 사이의 사랑 유형과 초야에 묻힌 인재 유형이다. 전자는 요절한 재녀의 혼령이 젊고 학식 있는 청년 선비에게 나타나 백년가약을 맺는 전개이다. 이런 줄거리는 『금오신화』에서 3회(『만복사저포기(萬福

1) 재러드 다이아몬드, 『총, 균, 쇠』, 김진준 역, 문학사상사, 1998

2)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전등신화’, 2022.12.23.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39469&cid=40942&categoryId=39994>)

3)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금오신화’, 2022.12.23.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70286&cid=40942&categoryId=33383>)

4)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op. cit

5)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op. cit

寺樗蒲記)』,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 「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 『전등신화』에서 5회(「금봉채기(金鳳釵記)」, 「등목취유취경원기(滕穆醉遊聚景園記)」, 「모란등기(牡丹燈記)」, 「애경전(愛卿傳)」, 「녹의인전(綠衣人傳)」) 발견된다. 『전등신화』의 「취취전(翠翠傳)」과 「추향정기(秋香亭記)」는 비극적 애정담이라는 점은 같으나, 죽은 여자와 살아 있는 남자간의 교분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논외로 한다. 후자는 속세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젊은 선비가 우연한 기회에 과거의 유명인이나 저승의 높은 신들을 만나 실력을 보여 주고 감동한 청중에게 융숭한 대접이나 극찬을 받는 줄거리로, 『금오신화』에서 2회(「용궁부연록(龍宮赴宴錄)」, 「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 『전등신화』에서 11회(「용당영회록(龍堂靈會錄)」, 「영호생명몽록(令狐生冥夢錄)」 외) 발견된다. 본고에서는 이후로 전자를 ‘애련(愛戀)형’, 후자를 ‘입신(立身)형’으로 칭하도록 한다. 또한 두 작품 모두 대부분의 수록작에서 현실 비판적 담론이 엿보이며, 창작 시가가 삽입되어 인물간의 대화와 생각을 더 풍부하게 한다는 공통점이 보인다.

두 작품은 구성상 매우 흡사한 면모를 보이지만, 차이점도 주목할 수 있다. 가장 확연한 예로 『전등신화』는 해피엔딩을 허용한다. 『금오신화』는 다섯 편의 주인공이 모두 속세의 생에 대한 의지를 잃고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결말을 맞지만, 『전등신화』의 「연방루기(聯芳樓記)」와 「위당기우기(渭塘奇遇記)」는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만난 남녀가 정상적인 부부의 형태로 맺어져 행복하게 해로한다. 귀신과 교류하는 ‘애련형’에서도 변주가 이루어지는데, 「금봉채기(金鳳釵記)」에서 남자 주인공 최생은 여자 주인공 흥랑의 사후에 그녀와 사랑하게 되지만 흥랑은 여동생 경랑의 몸을 빌려 그와 사랑을 나누고, 결말부에서는 최생이 경랑과 혼인하여 부분적이거나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결말을 맞는다. ‘입신형’ 역시, 『금오신화』의 무명 서생들은 환상계에서 맞본 입신출세와 이상적 정치를 실현할 수 없는 현실에 좌절하여 은거하거나 죽음을 맞는다. 『전등신화』 속 무명 서생들은 환상계에서 받은 은상이 현실까지 이어져 부귀영화를 얻거나 수명 연장, 과거 입격 등의 보상을 얻는 결말이 많다. 설령 현실적 보상은 얻지 못하더라도, 『금오신화』에서처럼 상심해 죽는 결말은 적다.

이는 저자 구우가 민담을 채록하고 개작하여 『전등신화』를 집필한 점과, 『전등신화』의 수록작 수가 『금오신화』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겠지만, 양국이 환상적 소재를 다루는 방식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음이 흥미롭다. 『전등신화』 속 환상계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많은 일들이 가능한 공간인 동시에 어느 정도 현실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이다. 「위당기우기」의 남녀 주인공은 환상적 공간인 꿈속에서 만나 연분을 맺었다가 현실에서 그 인연을 이루었다. 똑같은 꿈을 꾸 두 사람이 현실에서도 맞닿은 것이다. 「수궁경회록(水宮慶會錄)」의 주인공 여선문은 환상계에 속한 용궁에 가서 물질적인 보상을 받고 그 덕에 부자가 된다. 반면 『금오신화』의 환상계는 아무리 생생할지라도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없는 남가일몽에 불과하다. 애련형 이야기의 여주인공들은 잠시 산 자의 세상에 다니러 온 망혼일 뿐이어서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영영 사라지고, 입신형 이야기의 용궁과 저승은 그 안에 머무는 동안에는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영영 머물 수 없으며 거기서 받은 보상이 현실까지 이어지지도 않는다. 일각에서는 『금오신화』의 전기성을 김시습의 파란만장한 인생역정과 도선적 사상에서 연유한 현실 초극적 사상성의 구현으로 보았다.⁶⁾ 친삼촌이 조카를 몰아내고,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 한 중신들이 숙청되는 계유정난을 지켜보며 이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김시습이 서글픈 세계관을 작품에 투영했으리라는 추측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6) 「한, 중, 일 소설의 비교 연구 - 전등신화, 금오신화, 도기보오교를 중심으로」, 한영환, 정음사, 1985.3.

3. '진정령(陳情令)'과 '환혼'의 서사적 비교

'진정령(陳情令)'은 묵향동후(墨香銅臭) 작가의 웹소설 『마도조사(魔道祖師)』를 원작으로 하여 2019년 중국 텐센트 비디오(Tencent Video)에서 방영한 50부작 드라마이다. 10~30대 젊은 층을 겨냥한 동양풍 판타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드라마는 흥미진진한 플롯 구조와 매력적인 캐릭터 조형, 원작 소설을 잘 이해한 각색, 배우들의 호연 덕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환혼'은 2022년 한국 tvN 채널에서 방영한 드라마로, '홍자매'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홍정은과 홍미란 작가가 집필했다. 최근 웹툰이나 웹소설의 IP를 취득해 영상화하는 경우가 잦은 드라마계 특성상 원작 없이 인기 시나리오 작가들이 집필했다는 이유로도 방영 전 화제를 모았다.

'진정령'의 초반 플롯을 추동하는 중요 설정은 탈사(奪舍)와 헌사(獻舍)로, 산 사람의 육체에 죽은 원혼이 빙의되는 술법이다. 주인공 위무선(魏無羨, 샤오잔(肖戰) 분)은 13년 전 죽은 악명 높은 도사로, 그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원혼을 소환한 모현우(莫玄羽)의 육체에 빙의되어 부활하는 것이 이야기의 시작이다. 이 탈사/헌사 주술은 '환혼'의 핵심을 이루는 환혼술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환혼'의 환혼술사들은 타인과 혼을 맞바꿔 타인의 육체를 차지하고 몸을 빼앗긴 당사자를 제압할 수 있다. '진정령'에서 헌사한 사람과 '환혼'에서 환혼술을 행한 사람은 예전과 동일한 기억과 인격을 갖고 있지만 신체적인 능력은 새로운 몸의 한계에 묶여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환혼'에서 주인공 낙수(高允貞 분)는 생전에 대단한 무력을 가진 살수였으나, 환혼한 뒤에는 평범한 여종에 불과한 무덕이(정소민 분)의 체력밖에 갖지 못해 불만을 토로한다. 그러나 '진정령'에서 헌사한 사람은 평범한 인간처럼 특별한 능력이 없는 대신 제약도 겪지 않지만, '환혼'의 환혼인은 산 사람의 기운을 빨아들여 기력을 보충할 수 있으며 기력이 부족하면 서서히 석화되어 이성 없는 괴물로 변한다.

플롯의 구성적 측면에서 볼 때 '진정령'의 위무선과 '환혼'의 낙수는 서로 대응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위무선은 자신이 속해 있던 운몽(云夢) 강(江) 씨 세력의 복수를 위해 금기된 주술을 행하고, 정치적 숙청을 겪은 온(溫) 씨 일가를 보호하려다 수진계(修真界) 사회에서 추방되어 죽은 인물이다. 낙수는 평범한 술사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정치적 음모에 희생당해 죽은 뒤 인명을 해하는 살수가 되어 악명을 떨치다 살해당했다. 두 사람 다 본래 심성은 선하지만 상황 때문에 악인이 되었다. '진정령'과 '환혼'은 메인 캐릭터인 위무선과 낙수가 상황에 휘말려 일종의 위악(偽惡)을 취하고, 전혀 다른 신분으로 환생하여 본편 서사를 수행하는 유사 플롯으로 진행된다.

'진정령'의 두 번째 주연 남망기(藍忘機, 왕이보(王一博) 분)는 위무선과 정반대로 세간에 평판이 아주 좋은 팔방미인으로, 감정 표현이 거의 없을 만큼 무뎉뎉하고 침착하며 예의바른 성격이 특징이다. 그는 위무선과 십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위무선이 전혀 다른 몸으로 헌사해 돌아온 뒤에도 그를 알아보고 도움을 준다. '환혼'에서 남망기에 대입될 인물은 두 명이 있는데 장욱(이재욱 분)과 서율(황민현 분)이다. 장욱은 사회적 위치상 무덕이가 모시는 도련님으로, 낙수가 무덕이의 몸에 환혼했다는 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러나 장욱과 남망기의 공통점은 헌사/환혼으로 다시 돌아온 주인공의 정체를 알고 유대감을 쌓는다는 점 정도뿐이다. 장욱은 겉으로는 까칠하고 무심하게 굴면서 속으로는 낙수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전형적인 한국 멜로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다. 높은 평판, 과묵하고 침착한 성격, 주인공과의 과거의 인연 등의 공통점은 오히려 서울에게서 더 많이 발견된다. 표면적 특징이 비슷한 두 캐릭터는 상대의 정체를 알아보는 서사적 장치도 공유한다. '진정령'의 남망기는 위무선이 예전에 자신

이 들려줬던 곡조를 피리로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시즌1 중반부에 서울도 무덕이의 정체가 낙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무덕이가 예전에 자신이 선물한 새 피리를 부는 모습을 본 것이 계기였다. 서로 다른 작품의 두 캐릭터가 똑같이 음악이라는 매개로 과거에 애착을 가졌던 상대의 정체를 파악한 것이다.

‘진정령’에서 위무선은 갈등 서사의 주인공, 남망기는 로맨스 서사의 주인공을 맡아 각기 다른 지점에서 이야기를 끌어 나간다. ‘환혼’의 초반에는 유일하게 낙수가 무덕이의 몸에 환혼했다는 것을 아는 장욱이 남망기의 역할을 수행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시즌2에 접어들며 장욱은 신비스러운 ‘얼음돌’의 힘을 통해 죽음에서 살아나고, 인간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능력까지 갖게 되어 모두의 두려움을 산다. 한편 낙수는 기억을 잃고 생전의 얼굴로 다시 깨어난다. 장욱은 얼음돌 때문에 한 번 죽었다 살아났다는 특징을 낙수와 공유하게 되고, ‘정체를 감춘 자’와 ‘모두가 두려워하는 자’라는 위무선의 주요한 캐릭터성 두 가지가 각각 하나씩 낙수와 장욱에게 분배된다. 한편 서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위무선을 지키고자 했던 남망기와 달리 세상이 위험해지지 않게 낙수를 제거하고자 한다. 『금오신화』가 그랬듯이 ‘환혼’도 서사가 전개되며 독자적인 이야기를 써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크게 다른 점은 주제 의식이다. ‘진정령’은 로맨스의 하위 장르인 BL 소설을 원작으로 했기 때문에 두 주연 위무선과 남망기의 관계에 더 집중한다. 상술했듯 남망기는 로맨스 쪽, 위무선은 갈등 서사 쪽의 주인공이다. 작법서 『세이브 더 캣』에서는 재미있는 플롯의 요건으로 이중 플롯을 꼽는데, 표면적으로 이리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소개하여 독자의 흥미를 끄는 것이 제1플롯, 제1플롯을 해결하며 인물들간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여 주고 주제와 소재를 강화하는 것이 제2플롯이라고 설명한다.⁷⁾ ‘진정령’의 표면적 줄거리는 ‘13년 전 죽은 위무선이 다시 살아 돌아와 과거의 비밀을 파헤친다’이므로 위무선은 제1플롯의 주인공이고, 수진계 주요 인물들의 위선과 부패를 밝혀내는 건 위무선의 신원(伸冤)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위무선의 억울함이 풀리는 건 곧 작중 세계에 잔재한 큰 오류가 해결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환혼’에서 위무선에 해당되는, 두 번이나 살아 돌아온 낙수가 억울하게 가족을 잃었으며 다시 한 번 죽기 전에는 진무(조재윤 분)의 함정에 빠져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고 말았다는 사실은 전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다. ‘환혼’의 세계에 존재하는 중대한 문제점은 왕족인 고씨 일가 중 세상의 안녕을 책임질 인재가 없다는 사실이지만, 그건 낙수와는 상관없는 문제이다. 해결 열쇠는 낙수가 아닌 장욱으로, ‘환혼’은 장욱이 세상을 구할 ‘제왕성’의 운명을 타고난 기재라는 설정으로 그를 권력 다툼의 중심으로 끌어넣는다. 그리고 낙수가 새로 얻은 몸 무덕이의 정체가 전설적인 신녀의 후손으로 그 능력을 물려받은 진부연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낙수는 진부연의 몸에 잠재된 초월적 능력으로 장욱을 돕게 된다. 이는 ‘진정령’의 위무선이 부활한 몸 모현우와는 전혀 상관없는, 생전의 자기 자신이 가졌던 주술과 저주에 대한 지식으로 난관을 타개해 나가는 전개와 대비된다. 위무선의 개인적 서사가 중심이 된 ‘진정령’과 달리, ‘환혼’의 큰 축은 세상의 균형을 무너뜨리려는 자들과 장욱의 대결이다. ‘진정령’의 꼬인 갈등을 푸는 해결책은 과거의 은원에 있지만, ‘환혼’의 그것은 다가오는 거대한 혼돈에 맞서는 것이다.

1. ‘진정령(陳情令)’과 ‘환혼’의 장르적 비교 - 한국 드라마에 응용된 중국식 고장극(古裝劇) 장르 문법

7) 제시카 브로디, 『Save the Cat! 나의 첫 소설 쓰기』, 정지현 역, 타인의사유, 2021

한국과 중국 양국간의 엔터테인먼트는 오랫동안 동북공정 논란으로 쟁쟁한 관계였다. 2010년대에는 주로 한국이 중국에서 제작된 콘텐츠에 한국 고유의 문화 요소나 혐한(嫌韓)적 특징이 들어갔다는 것을 지적했다. 한 예로 2019년 한일 양국에서 드라마 ‘동궁(東宮)’이 인기를 얻자 원작 소설도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는데, 작품 내에 고려를 비하하는 묘사가 들어간 것으로 큰 논란이 일어 출간을 취소하고 전자책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2020년대에는 한국에서 제작된 콘텐츠에 중국적 요소가 들어간 것을 한국 시청자층이 지적하고 비난하는 새로운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2019년 드라마 ‘철인왕후’는 중국 웹소설이자 드라마인 『태자비승직기(太子妃升职记)』를 리메이크했다는 이유로 논란을 겪었고, ‘조선구마사’는 ‘철인왕후’보다도 거센 동북공정 논란을 맞닥뜨려 1회 만에 드라마 전체가 캔슬되었다. 2022년 드라마 ‘슈룹’은 2010년 중국 드라마이자 웹소설로 후궁 암투물의 표준을 세웠다고 평가받는 ‘후궁견환전(後宮甄嬪傳)’과의 플롯 및 설정 유사성을 지적받았다. ‘중국풍’ 기피 현상은 갈수록 민감해지고 있는데, 2021년 드라마 ‘달이 뜨는 강’과 ‘슈룹’은 복식과 설정 유사성뿐 아니라 화면에 잠깐 등장한 한문이 현대 중국에서 사용하는 간체(簡體) 자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했다. 이렇듯 증가하는 민감성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으로 생각된다. 드라마를 소비하는 대중의 역사 의식과 지식 수준이 높아짐과 동시에, 동북공정과 한한령(限韓令), 한복과 김치를 비롯한 한국 고유 문화를 자국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중국의 행보가 한국 대중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거듭 심어 주었기 때문이다. 사극 제작이 점점 까다워지고 위험 부담이 커지는 현황에서 콘텐츠 제작자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다.

중국은 콘텐츠 제작 환경이 한국에 비해 상당히 까다롭다. 중국의 모든 방송국 및 방송 시스템은 국가 소유로 국가 기구인 중국광전총국(中國广电总局)의 관리와 통제를 받는다.⁸⁾ 모든 드라마는 방영 전 검열을 통과해야 하며, 불건전하다고 간주된 장면은 삭제되거나 아예 작품 자체가 방영을 허락받지 못한다. 중국 정부는 작품의 내용뿐 아니라 주제도 꼼꼼히 검열한다. 2010년 타임슬립 소재를 다룬 드라마 ‘보보경심(步步驚心)’이 큰 인기를 끌어 젊은이들 사이에 붐이 일자 타임슬립과 환생 소재를 금지했으며, ‘후궁견환전’의 인기가 이어지자 사회 갈등과 다툼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후궁 암투물 제작에 경고를 내렸다. 이런 배경 탓에 중국 매스미디어 창작자들은 일찍이 제약을 벗어나 자유로운 창작을 할 방안을 시도했다. 고장극(古裝劇)은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등장한 장르로, 고대의 역사를 시공간 배경으로 삼고 그 사회상을 반영한, 정통 사극 및 퓨전 사극이 중첩된 중국 TV드라마의 하위 장르이다.⁹⁾ 고장극은 역사적 사건의 진실성을 추구하기보다 과거의 물리적 환경을 실제적으로 묘사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고대의 문화전통을 시각적으로 전시하는 장르적 특징을 가진다.¹⁰⁾ 이런 고장극들은 다양한 세부적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진정령은 그중에서도 선협(仙俠) 탐미(耽美) 고장극으로서, ‘천성장가(天盛長歌)’나 ‘랑야방(琅琊榜)’처럼 가상의 국가에서 펼쳐지는 정치 암투 사극과 구분된다. 선협이란 21세기에 새로 개척된 무협의 하위 장르로 홍콩의金庸(金庸) 작가 등이

8) 「중국 TV 역사드라마 “후궁견환전” 분석에 관한 연구 -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중심으로」, 손교정 외, 한국미용예술경영학회, 미용예술경영연구 7권 3호, 2013.12, 원주 한국 콘텐츠진흥원 중국 사무소 2012. 11. 15 중국 콘텐츠 상업동향

9) 「중국 고장극(古裝劇)의 스토리텔링과 제국 의례의 표상 - TV드라마 랑야방(琅琊榜)(2015)의 신년례(新年禮)와 「보보경심(步步驚心)」(2011)의 의례적 출세(出塞)를 중심으로」, 문현선,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중국현대문학 95권 0호, 2020.10.

10) 「중국 TV드라마 <보보경심(步步驚心)>(2011)과 리메이크 한국 TV드라마 <달의 연인: 보보경심 려(麗)> (2016)의 서사 비교 연구 - 그레마스 기호학에 의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영희 외, 중국학연구회, 중국학연구 94호 0호, 2020.11

정립한 정통 무협의 틀을 벗어나 작가가 비교적 자유롭게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동양풍 판타지로도 불린다. 한국 시청자들에게도 인기를 끈 드라마 ‘삼생삼세십리도화(三生三世十里桃花)’, ‘향밀침침신여상(香蜜沉沉烬如霜)’ 등이 이 선행 장르에 속한다. 탐미란 주로 젊은 여성을 소비자로 겨냥하는, 남성 캐릭터간의 러브스토리인 BL(Boys’ Love)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로, 광전총국의 방영 지침에 어긋나는 동성간의 성적인 묘사 등을 걸러내어 동성애를 일명 ‘사회주의 형제애’로 포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조선구마사’의 참사 후, 한국에서 사극을 제작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조선구마사’가 조기종영되고 5개월 후에 방영된 사극 드라마 ‘홍천기’는 원래 조선 세종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었으나, 방영 전 수정을 거쳐 ‘단’이라는 가상 국가로 변경되었다. 이 같은 이른바 ‘가상 사극’은 2020년대 전까지 한국 드라마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형태의 장르이다. 예전에도 정통 사극보다 자유로운 플롯과 연출로 대중에게 사랑받았던 ‘해를 품은 달(2012)’, ‘구르미 그린 달빛(2016)’ 등 일명 퓨전 사극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작품들도 가상의 인물을 창조하거나 대체역사적 전개를 택하더라도 배경 자체는 실제 역사에 존재했던 시간과 국가에 머물렀다. ‘해를 품은 달’은 가상의 왕 ‘이현’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긴 했으나, 근정전이라는 건물명이 대사에 그대로 사용되었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존재했던 조선에 가상의 왕의 치세를 하나 더 추가해 넣은 것뿐이었다. ‘구르미 그린 달빛’은 실존 인물인 효명세자를 주인공으로 삼고 그가 요절하지 않고 살아남는 결말로 바꾸어 해피엔딩을 선호하는 시청자의 정서에 맞게 각색했다. 복식과 건물, 예법 등은 조선에서 영향을 받았을지언정 극중에서 조선이라는 국명을 사용하지 않는 ‘홍천기’의 실험 후 제작되고 방영된 ‘환혼’은 본격적인 가상 역사극에 판타지적 요소를 덧붙인 새로운 장르의 출현이라고 함직하다.

‘환혼’은 ‘대호국’이라는 가상의 국가에서 펼쳐지며, 줄거리와 오프닝에서 ‘역사에도 지도에도 없는 나라 대호국’이라고 명시하여 그 허구성을 강조한다. ‘진정령’은 시청자와 원작 독자들의 연구를 통해 위진 남북조 시대를 모델로 했다고 추정되나 정확한 시대적 배경이나 국가의 이름은 제시되지 않는다. 두 작품은 일견 무협물처럼 보이지만, 사실 역사만큼이나 무협소설의 공식에서도 자유로운 창조성을 보여 주고 있다. 무협문의 대가 김용을 계승하는 일명 정통 무협에는 남궁세가(南宮世家), 사천당가(四川唐家) 등 체계적으로 정립된 유력 가문들과 화산파(華山派), 소림사(少林寺) 등의 문파가 규칙처럼 등장한다. 그러나 ‘진정령’은 문파가 쇠락한 뒤 남(藍) 씨, 강(江) 씨, 온(溫) 씨, 섭(聶) 씨, 금(金) 씨 다섯 개 가문이 각축전을 벌인다는 독립적인 설정을 갖고 있고, ‘환혼’은 장씨, 서씨, 박씨, 진씨 네 개 가문과 왕족인 고씨가 서로 협조하면서도 견제하는 양상을 그린다. 모호한 시대적 배경이 ‘환혼’의 고장극적 특징이라면, 독자적인 판타지 세계관 설정은 선행적 특징이라 하겠다.

5. 결론

한 학기 동안 진행된 사(史) 강의에서는 한류를 ‘최초로 아래에서 위로 전해진 문화’라고 표현했다. 동아시아권 4대 공통 문화 요소로 꼽히는 한문, 유교, 불교, 율령을 대표격으로 하여 주변국에 선진 문화를 전달해 주는 입장이던 중국이 한국의 한류를 받아들인 현상은 이례적이라고 평할 만하다. ‘환혼’을 필두로 하는 가상 역사극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오랜만에 중국에서 이미 시도된 문화 요소가 한국으로 흘러든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

편성을 추구하는 교류가 아니라 반대로 차별성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면 이 차별성은 동북공정과 혐한에 반기를 들기 위한 고도의 노림수이다. ‘환혼’은 한국적인 판타지를 표방해 작중에서 한문을 사용하지 않는다. 화산에 살며 뜨거운 기운을 가져 세상을 말려 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환상적 새의 이름이 불 화(火)에 새 조(鳥)가 연상되는 ‘화조’인 것처럼 대부분의 한국인 시청자들에게 익숙한 한자 문화를 활용한 흔적은 눈에 띄나, 서책과 간판 등 화면에 글자가 노출되는 모든 장면에서는 한글이 쓰인다. 고대 동양의 형식미를 차용한 작품이라면 한문과 유교를 절대 빠뜨릴 수 없는데도, 하필이면 재러드 다이아몬드도 중요하게 거론한 바 있는 한문이 ‘환혼’의 세계에서 제거되었다는 점은 주의 깊게 볼 만하다. 시즌2에서는 주인공 장옥의 스승으로 상당한 분량을 확보하고 있는 캐릭터 박진(유준상 분)이 김치를 담그는 장면이 등장했다. 플롯은 시즌1에서 무덕이의 정체가 낙수로 밝혀지고 그를 목인한 장옥이 비난받는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본인이 책임을 짊어지고 은둔한 박진이 일종의 현실 도피이자 취미로 요리를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다소 뜬금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김장 장면은, ‘중국 드라마 같다’라는 지적을 받고 실제로 2020년작 중국 선협 드라마 ‘장야(将夜)’와 줄거리가 흡사하다는 표절 논란까지 일어났던 시즌1을 의식해서가 아닌지 의문이 남는다.

지도에도 역사에도 없는 나라 대호국은 주변에 중국도, 일본도, 다른 어떤 국가도 없는 나라이다. 『금오신화』는 『전등신화』의 구성에서 영감을 얻었을지라도 전형적 한국인에 의해 사상, 감정이 자연스레 전개되어 저항감이나 어색함이 없는 한국적 사건으로 정착되어, 단순한 모방이 아닌 한국적 독창성으로 거듭났다.¹¹⁾ ‘환혼’ 역시, ‘진정령’ 등의 선협 고장극이 개척해 놓은 장르적 형식을 이어받으면서 한국 멜로드라마의 관습인 자유분방한 여주인공과 차갑지만 여주인공만은 아낌없이 사랑하는 남주인공 사이의 밀당, 세상을 구할 선택받은 주인공 등의 요소를 첨가하고 변주하여 자신만의 개성을 만들어냈다. 본고에서 살펴본 바 『금오신화』와 ‘환혼’은 둘 다 중국적 문화 요소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그 확장과 전개는 다분히 독립적인 길로 나아갔다. 이는 단순히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발생한 문화 교류를 넘어 문화 차별화, 혹은 문화 독립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든 데에는 독자적 문자 체계를 만듦으로써 중국의 ‘말’에서 벗어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었다. 한국 드라마계가 사극의 ‘중국풍’으로 한바탕 몸살을 치른 후에 등장한, 중국적 고장극의 장르 문법을 응용하여 한국적인 판타지를 시도한 ‘환혼’에 한문이 없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금오신화』가 한국적 전기 소설의 시초가 되었듯이, ‘환혼’ 이후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여 역사 고증에서 자유로우면서도 ‘한국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고유의 사극들이 뒤이어 등장할 것을 짐작해 본다. 그 출발점은 아마 새로운 한류의 시작, 그리고 전에 없었던 한국적 동양미의 창조와 동일선상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 왜곡 우려’를 내세워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재조명하거나 비판하는 작품의 제작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내건 제한 때문에 고장극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신 안에서만 존재하는 가상의 세계에 갇혀 있는 고장극처럼, 똑같이 역사 왜곡 비난을 피하고자 가상의 배경을 만든 한국식 가상 역사극 또한 오히려 더 좁고 폐쇄적인 우물에 갇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제약을 피하기 위해 또 하나의 재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불가능한 미학을 성취하기 위해 가상적 세계를 창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1) 한영환, op. cit